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

국립태권도박물관, 근대문학 희귀 초판본 '님의 침묵' 등 전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부처님 오신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을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제막식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제막식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 백련사 평상 스님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장호걸원장 등이 참석한다.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에서는 근대문학 희귀 초판본으로 알려진 1926년 작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비롯해 만해 한용운 진영(眞影) 조선불교유신론 님의 침묵 금경 등 만해기념관 유물과 함께 천수천안 지장탱화 아미타삼존도 등의 고려불교미술연구소 소장 불화도 전시된다.

특히 님의 침묵 초판본 등 평소 접하기 어려

운 불교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부처님 오신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방문객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독립운동가 겸 승려인 만해 한용운의 고귀한 숨결을 비롯해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도와 다양한 무예에 대한 전시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특별전은 태권도진흥재단과 만해기념관(전보삼 관장), 고려불교미술연구소(원장 장호걸) 간 교류전시 개최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주=전문선기자 만해 한용운 진영.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 수상자 발표

강선주 씨 '이 또한 지나가리라' 대상 수상

제5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쓴 강선주(48·경기도 김포)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 씨의 감상문은 인물의 성격과 구도, 내면의 풍경과 외면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세상을 향한 이상향 또는 동경의 의미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울림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

다. 강선주 씨는 "플라멩코 추는 남자'에서 변화무쌍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각자의 삶에 '혼불 정신'을 제 나를 녹여 내며 '살아왔고, 살아가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 또한 언젠가는 지난 과거가 돼 있을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 공모전은 지난해 가을부터 3월 말까지 제11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플라멩코 추는 남자' 단 한 편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해 모두 401편의 작품이 접수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브랜드공연 '칠우전' 기자간담회 가져

전주문화재단은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전주시 브랜드공연 '칠우전(七友傳)'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백옥선 대표이사, 남인우 연출, 그리고 이번 공연을 준비한 주요 제작진 및 출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 개요와 기획 의도, 시놉시스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칠우전(七友傳)'은 기존 판소리 5바탕에서 벗어난 전주시 브랜드공연(마당창극)을 위해 새롭게 창작한 초연작이다. '한국과 전주의 이야기'를 접목한 주제로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현대적 연출, 음악과 결합해 해학과 예술성, 대중성까지 두루 갖춘 창작 마당극으로, 전통과 현대의 멋진 어우러짐을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에 남인우(연출), 강현주(조연출), 방수미(작창), 강한준(작곡), 이윤정(인무) 등이 참여,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젊은 소리꾼 및 약사 19명이 마당창극 칠우전(七友傳)을 이끈다.

한편, 6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주한벽문화관 야외마당에서 진행될 '칠우전(七友傳)'은 내달 티켓오픈을 앞두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은 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전주시 브랜드공연 '칠우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 오늘 지역문화 정책포럼 개최

전라·제주권 광역문화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지역문화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9월 전라·제주권 4개 광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연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회원기관은 광주·전남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이번 행사는 출범 후 추진하는 첫 공동사업이다.

이번 포럼은 차기 정부 문화정책에 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해 문화재단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김도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객원교수가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다. 이어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문화분권·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프로세스 제안'을,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새 정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주제별 토론과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지향점과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행사 종료 후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아우르는 정책제안서를 채택해 발표하고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산민이용서예전 '다시, 봄' 한국소리문화전당서 열린다

제19회 산민이용서예전 '다시, 봄'이 5월 4~11일까지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개막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략된다.

이번 전시 작품은 예서법화경(길이 38m, 7만자), 금문법화경(길이 35m, 7만자), 봄, 정춘예찬 등 63점이다.

작가에 따르면 한국 서예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산민 이용 선생은 서예 발전을 위해 평생 바쳐 연구와 창작에 전념했으며, 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서예정신이 오롯이 배인 이십여 권의 저서를 출간한 후학들에게 지침서가 됐으며, 열아홉 번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유려하고 심오한 작품세계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일찍이 한국현대서예협회 이

사장으로서 우리나라 초기 현대서예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 특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탄생시켰으며, 집행위원장·총감독으로서 1997년 제1회부터 2008년까지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 미술계에 한국서예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60여 년간 다져온 작가의 예술세계와 끊임없는 창작 열의를 응축시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춘향제 다채로운 공연 펼쳐진다

남원시는 제92회 춘향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오직 '공연'에 충실히 준비했다.

춘향제 축제하면 으레 떠오르는 난장이나 주점 등이 없는 오로지 양질의 공연에만 집중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공연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춘향제는 크게 6개의 장소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로 ▲완월정-춘향마당 ▲광한루각-소리청 ▲춘향사당 인근-월매마당 ▲요청 둔치-방자마당 ▲예춘마당-향단마당 ▲예무원 인근-통통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춘향마당은 이번 춘향제의 메인 무대로 개막 공연을 비롯해 이번 춘향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제92회 춘향제의 메인무대인만큼 이곳에 펼쳐지는



춘향제 공연장 조감.

공연들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